

오늘은 우리가 프로듀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대관·공유

주민 크리에이터를 위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출발

2021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5%로 이제 누구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영상을 시청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고 중계하는 일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비와 공간만 준비된다면 누구나 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 미디어활동에 필요한 것이 다 있네?

주민이 지역행사가 있을 때 영상에 담고 싶어도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유료로 대여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북구 아리랑로에 위치한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방송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교육실, 녹음실 등을 갖추어 구민에게 공간과 방송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 주민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전경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조정실)



라이브 중계단 지원

미디어자원 공유에서 비롯된 주민자치 활동 성과

2021년, 센터의 방송 공간·시설 대관은 235건, 장비 공유는 148건으로 이용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성과다.

이렇게 센터의 공간과 장비 공유가 활발해진 데에는 성북구 라이브중계단의 역할이 컸다. 라이브중계단은 센터의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제작한 마을콘텐츠를 성북마을TV를 통해 송출하고 중계하는 주민 중심의 미디어 활동가 그룹이다.

2021년 중반, 성북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주민이 카메라 장비를 센터에서 대여해 직접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주민 제안 의제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로 송출하기도 했다. 라이브중계단에서 활동 중인 돈암2동 주민자치위원 김○○(57세)님은 “준비된 시설과 주민들이 있어 쉽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 모두 비대면 영상회의에 참여했으며, 특히 온라인 활동에 익숙치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힘주어 말한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센터 비전 아래 2021년에는 영상 142편, 라디오 190편의 콘텐츠가 제작되었고, 성북마을TV를 통해 송출된 콘텐츠는 336건에 달했다. 세상에 나오게 된 미디어 콘텐츠들은 주민 스스로 만든 창작물인 만큼 큰 관심을 불러와 최근 1년여의 콘텐츠 조회수는 8만 건에 육박했다.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로 나아가다

올해로 설립 8년차에 접어든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센터는 향후 ‘주민이 편안한,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미디어 삼편 정책을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미디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장비대여 교육



성북마을TV 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마을미디어 제작